

# 1970년대 전후 한일 문학 교류와 영향\*

## - '문인간첩단사건'과 일본 내 문인 인권 구명 운동을 중심으로 -

윤미란\*\*

### 〈차 례〉

1. 일본에서 시작된 '한국의 술제니친' 구명운동
2. 『한양』과 재일본 문인의 '한국 술제니친' 구명 운동
3. 일본에 전해진 '한국 술제니친'의 글과 영향
4. 한국의 <구리 이순신>과 일본의 <구리 이순신>
5. 결론 및 과제

### [국문초록]

본 논문은 1970년대 전후 한국과 일본 문학자들의 교류와 소통 그 의의를 구명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일본에서 한국어로 발행된 잡지 『한양』은 1970년대 전후 재일본 문인들이 한국사회 와 한국문학을 교류하던 소통의 장으로서 기능하였다. 1974년 '문인간첩단사건'이 발생하고, 일본에서는 한국문인 구명운동이 "한국의 술제니친"이라는 표어 아래 본격화되었다. 한편 김지 하의 희곡 「구리 이순신」은 김지하 구명운동의 일환으로 1972년부터 공연되었는데 이 운동도 당시 더욱 확산되어 있었다. 이로 인하여 일본 내에서 한국사회와 한국문학 그리고 한국문인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었다. 이런 사회적 배경은 유신정권의 친일기반적 성격과 통하는 일본 보수세력 그리고 반정권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는 진보적 지식인 모두에게 영향을 주었다.

[주제어] 1970년대, 잡지 『한양』, '문인간첩단사건', 술제니친, 「구리 이순신」, 일본 내 한국 문학, 영향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2092184).

\*\*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전임연구원

## 1. 일본에서 시작된 ‘한국의 솔제니친’ 구명운동

박정희 유신정권 치하였던 1970년대의 한국 사회의 엄혹한 상황을 일본 사회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 경제개발을 내걸고 군사독재의 필연성과 정당성을 공고히 하려고 하였던 권력층과 민주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이상적인 민족국가 건설을 꿈꾸었던 지식인, 시민계층 사이에서 벌어졌던 여러 사건 사고들의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을 따져 재판단을 하고자 하는 시도가 근래 한국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1970년대 한국의 사건들에 관하여 한국을 둘러싼 다른 국가의 반응은 어땠는지. 관심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그 관심의 영향은 또 어떠했는가.

1974년 1월 초순 아직 정초 분위기가 채 다 가시지도 않은 때에 “재일동포들이 주축으로 내는 것으로 그 동안 한국 내 유명 문자들(박종화, 백낙준, 백철, 이해랑, 모운숙, 김동리, 조연현, 정비석, 조경희, 유주현 등)이 거의 망라된 필진이 참여했던 데다 한국 보급 총책으로 박정희와 개인적으로 아직 친숙한 구상 시인이 맡았”고, “국회도서관에도 비치될 정도로 전혀 불법이 아니었”<sup>1)</sup> 도쿄에서 한국어로 발행되던 잡지 『한양(漢陽)』에 글을 썼던 5명의 문인 이호철, 임현영, 김우중, 장백일, 정을병이 ‘간첩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른바 ‘문인간첩단사건’의 서막이 올랐다. 이로부터 44년이 지난 2018년 임현영이 무죄를 선고받음으로써 ‘문인간첩단사건’에 연루되었던 문인 모두 누명을 벗었다.<sup>2)</sup>

한국의 ‘문인간첩단사건’은 사건 자체가 우선 일본에서 발행된 잡지와 관련되어 있었으므로 일본 사회의 주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양』의 발행, 배포와 관련된 재일조선인을 주축으로 주목이 시작된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나 그 이후의 일본 사회에서 일어난 일련의 구명운동이

1) 임현영, 「회고 투스타의 추억 한 토막 - 문인간첩단 사건에 대한 기억」, 『기억과 전망』 43호,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20, 216쪽.

2) 「'문인 간첩단 사건' 임현영 무죄...44년만에 전원 누명 벗어」, 『뉴스스』, 2018. 6. 24.  
([https://newsis.com/view/?id=NISX20180624\\_0000344611&cID=10201&pID=10200](https://newsis.com/view/?id=NISX20180624_0000344611&cID=10201&pID=10200))

나 현상들은 일본에 전해진 ‘문인간첩단사건’에서 파생되어 생겨난 한국(또는 한국문학)에 대한 주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문인간첩단사건’을 둘러싼 일본 사회의 한국에 대한 관심과 정도, 그리고 그 영향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1970년대에 생겨난 일본의 한국문학부의 초기 현상을 규명하고 그로 인한 한국과 일본의 문학 교류에 내재되어 있는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분야와 관련된 기왕의 한국문학연구는 크게 ‘문인간첩단사건’연구와 잡지 『한양』연구로 대별할 수 있다. 임유경은 ‘문인’이라는 독특한 표상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문인간첩’이라는 낙인의 정치적 효과로서 처벌적 기능과 함께 예방의 효과를 창출했다는 점을 밝혀내고 ‘문인간첩단사건’이 검역 당국의 출현과 문화 통제 방식의 전환을 인상적이면서도 분명하게 드러내준 대표적 사례라고 보았다.<sup>3)</sup> 한편 임현영의 회고이자 연구인 두 편의 논문은 사건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알 수 있는 기록적 연구의 성과로 볼 수 있다.<sup>4)</sup> 또 ‘문인간첩단사건’의 경험을 토대로 한 이호철의 작품을 분석하고 의의를 구명한 작가작품연구가 있다.<sup>5)</sup>

잡지 『한양』에 관한 연구는 하상일과 손남훈의 주도로 서지학적 연구와 게재 작품 및 내용, 담론 연구가 2000년대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다.<sup>6)</sup> 이들 연구

- 3) 임유경, 「낙인과 서명 - 1970년대 문화 검역과 문인간첩」, 『상허학보』 53집, 상허학회, 2018.
- 4) 임현영, 「내가 겪은 사건 - 4년 문인간첩단사건의 실상」, 『역사비평』 13호, 역사문제연구소, 1990; 임현영, 앞의 논문, 『기억과 전망』 43호,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20.
- 5) 유입하, 「달린 현실과 열린 분단의식 - 이호철의 장편소설 『문』」, 『돈암어문학』 23호, 돈암어문학회, 2010; 서세립, 「이호철 장편소설 『문』에 나타난 분단 인식」, 『이화어문논집』 39집, 이화어문학회, 2016; 서세립, 「이호철 소설과 일본」, 『한국근대문학연구』 19호, 한국근대문화학회, 2018; 오창은, 「만들어진 '악'과 분단서사의 굴절」, 『어문논집』 74집, 중앙어문학회, 2018; 조현일, 「이호철의 『문』」, 『문』과 법의 폭력성에 대한 연구, 『비평문학』 74호, 한국비평문학회, 2019.
- 6) 하상일, 「1960년대 현실주의 문학비평 연구 : 『한양』·『청백』·『창작과비평』·『상황』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손남훈, 「『한양』계제 시편의 변화 과정 연구 : 庚連과 鄭英勳의 시를 중심으로」, 『韓國文學論叢』 70호, 한국문화학회, 2015; 손남훈, 「『한양』계제 제일 한인시의 주체 구성과 인술 전략」,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손남훈, 「1960년대 『한양』의 민족주체성 회복 담론」, 『인문학연구』 56호,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6; 하상일, 「1960~80년대 제일(在日) 종합문예지 『한양』계제 문학작품의 서지적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74호, 한민족문화학회, 2021; 조은애, 「디아스포라의 교착과 '연대'의 일계」, 『디아스포라의 위도』, 소명출판, 2021; 하상일, 「1960~80년대 제일(在日) 종합문예지 『한양』과 한국문학의 교섭」, 『한민족문화연구』 77호, 한민족문화학회, 2022; 손남훈, 「『민족의 존엄』에 나타난 민족 주체성 담론과 정치 비판

를 통해 『한양』의 발행인, 편집인 그리고 게재 작품의 작가와 유형 등의 기본적인 서지학적 정보에 관한 성과가 축적되어 있으며, 『한양』과 게재 작품의 의미와 지향성 등에 관한 연구도 최근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왕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면서 기존에 연구되지 않았던 『한양』을 매개로 한 한일 문학 교류의 양상을 살펴보고 그로 인해 생겨난 일본 내에서의 한국사회와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과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문인간첩단사건’에 관련된 문인들의 구명운동이 어떤 양상으로 일본에서 일어났으며 확산되었는지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이 구명운동 와중에 일본 내에서 생겨난 여러 한국사회와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이 이전 시대의 그것과 어떤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의의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 2. 『한양』과 재일본 문인의 ‘한국 솔제니친’ 구명 운동

타락한 권력에 저항하는 자의 대명사로서 구소련에는 알렉산드르 솔제니친(Александр Исаевич Солженицын, 1918-2008)이 있다면 한국에는 ‘문인간첩단사건’에 연루된 5명의 문인들이 있다고 1974년 5월 일본에서 처음으로 일컬어졌다. 이 인식은 국제인권수호기구인 국제앰네스티 일본지부 가교(架橋) 제6그룹이 펴낸 40쪽의 책자(의 제목) 『한국의 솔제니친 이호철, 김우중 등 5명의 문인을 구하라!』에서부터 퍼져나왔다.<sup>7)</sup> 일본은 ‘문인간첩단사건’이 한국 이외의 곳에서 상세히 알려진 최초의 장소가 되었고 또 세계로 널리 퍼뜨려지는 구심점이 되었다.

솔제니친은 한국에서 1972년부터 조금씩 소개되어 인식되기 시작하였는데 일본에서는 이미 1963년에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가 번역, 소개되었

의 논리』, 『한민족문화연구』 80호, 한민족문화학회, 2022; 하상일, 「1960~80년대 재일(在日) 종합 문예지 『한양』과 재일조선인문학의 영향』, 『한민족문화연구』 82호, 한민족문화학회, 2023.

7) アムネスティ日本支部「橋架」(第6)グループ, 『韓国のソルジェニツィン - 李浩哲, 金宇鐘ら五名の文人を救おう』, アムネスティ日本支部「橋架」(第6)グループ, 1974. 5.

다. 당시 아직 일본 내에 전후 소비에트 문학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솔제니친의 문학이 적극적으로 또 경쟁적으로 소개되면서 일본 사회는 솔제니친의 문학적 충격에 휩싸였다.<sup>8)</sup> 1982년 일본을 방문하기 전까지 솔제니친은 일본사회에서 “세계적인 문학자이자 소련 당국의 핍박을 받은 ‘수용소 작가’로서 상징성”<sup>9)</sup>을 가지고 어필되었으며 이 점은 일본의 대중 독자들에게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일본 내의 이런 솔제니친의 상징성을 일본 앰네스티 측에서는 한국의 ‘문인간첩단사건’에 연루된 이호철, 김우중 등의 5명의 문인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1961년 설립된 국제 비정부 기구로 중대한 인권 학대를 종식 및 예방하며 권리를 침해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정의를 요구하고자 행동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비영리단체이다. 아직 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앰네스티에서 한국의 ‘문인간첩단사건’ 5인의 문인 구명운동을 벌이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다.

#### 일러두기

- 이호철, 김우중 씨 등은 작년 11월 문학자, 지식인 60여 명에 의한 개헌요구 성명에 이름을 올렸고 그 때문에 다른 저명한 문학자, 지식인 3명과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이들 5명의 재판은 ‘한국의 솔제니친’ 사건으로서 한국 내에서도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으며 또 체포 이유가 일본에서 발행되고 있는 『한양(漢陽)』지에 기고하고 고료를 취함으로써 반공법에 저촉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문학자나 그밖의 많은 사람들에 의해 구원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우리 앰네스티 일본지부 ‘가교’(제6) 그룹은 런던 앰네스티지부에서 상기 5명의 문인, 지식인 중에 김우중의 구원을 정식으로 의뢰받아 김우중 씨는 물

8) 일본의 솔제니친 문학의 수용과 영향에 관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양아람의 「1982년 솔제니친의 일본 방문과 일본의 솔제니친 수용 : 반공, 일본 공산당과 역사 인식」(『아세아연구』 제64권 제4호 (통권 제186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2021)을 참고할 것.

9) 양아람, 앞의 논문, 121쪽.

론 다른 4명에 대해서도 구원운동을 개시하고 일본에서의 서명, 모금운동과 함께 지금까지 한국에 앰네스티 멤버를 파견하고 재판의 방청이나 가족과의 회견 등을 수행해왔습니다. 특히 변호사 나카다이라 겐키치(中平健吉) 씨의 방청은 한국 내에서 더없이 큰 반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sup>10)</sup>

국제앰네스티는 김우종의 구원을 누군가에게 (혹은 어딘가에서) 요청받아 한국의 ‘문인간첩단사건’에 관해 조사를 하고 정식으로 구명운동을 펼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앰네스티 일본지부에서 파악한 ‘문인간첩단사건’의 전모는 상당히 정확한 것이었다. 관련 문인들의 체포 이유를 “일본에서 발행되고 있는 『한양(漢陽)』지에 기고하고 고료를 취함으로써 반공법에 저촉된 것으로 서술함으로써 객관적이고 비교적 냉정한 문체를 구사하였고 ‘간첩’과 같은 정치, 사상적으로 민감한 어휘의 직접적인 사용은 삼갔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한국의 솔제니친’ 사건”으로 명명함으로써 문인을 억압하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행위를 자행하는 한국의 독재 권력을 독자들이 비유적이면서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국제앰네스티에 김우종의 구원을 청한 주체와 『한양』의 관계자들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을 터이지만 일본 앰네스티 측은 일본 내의 ‘솔제니친’의 상징성, 소위 조국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작가의 이미지를 내세워 김우종 등 5명의 작가들을 직관적으로 ‘솔제니친’의 위상으로 끌어올려 일본 내 문인, 지식인 독자의 주목을 인상적으로 끄는 전략을 취했으며 이 전략은 매우 주효했다.

계기와 구원 운동의 정당성을 매우 비유적으로 표현했던 것과 달리 본문의 구성과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것으로 조직하였다.

일본문인 · 지식인의 성명

요망서

10) アムネスティ日本支部「橋架」(第6)グループ, 앞의 책, 일러두기.

한국문인 · 지식인의 진정서

재판중인 5인의 가족과의 회전기

제3회 공판방청기

문인 5인의 경력

작품소개 - 김우종의 수필집 『외롭지 않으려고 써버린 낙서』(지원사, 1972)

서문을 소개함.

기소장<sup>11)</sup>

구성과 내용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위와 같다. 우선 일본의 저명한 인기 작가인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를 비롯한 35명의 일본문인, 지식인의 성명서와 요망서가 눈에 띈다. 또 재판중인 5명 문인의 가족들과의 인터뷰 내용 나아가 제3회 재판 방청 내용을 낱낱이 정성스럽게 일본어로 번역하고 게재하여 사실성과 현장감을 높였다. 일본 앰네스티를 비롯한 구명 운동 참여자들의 진정성과 열의가 드러난다.

그런데 더욱 인상적인 점은 바로 “한국의 술제니친” 5인을 대대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인간첩단사건’에 연루된 이들 문인들은 이전까지 『한양』에 글을 몇 편 썼을 정도이기에 본 잡지를 통해서만 이름을 간간히 접할 수 있었던 남한의 작가였을 터인데 구명운동이 일어난 이후부터는 일본 사회에 이전보다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한 환기와 주목성을 십분 활용하려는 듯 일본 앰네스티는 이들 작가와 작품을 소개하고 1972년에 한국에서 출판된 김우종 수필집<sup>12)</sup>의 서문을 일본어로 번역하여 실었다.

그리고 일본 앰네스티는 “일본뿐만 아니라 서독이나 노르웨이, 미국 등 세계 다른 나라의 앰네스티 그룹도 (이들의 - 인용자) 구원에 나서고 있으며 국제적인 규모의 운동이 퍼지고 있”<sup>13)</sup>다는 점을 명기함으로써 양심 있는 문인들을 위해 양심 있는 전세계인이 힘을 모아 구명운동을 펼쳐야 함을 역설

11) アムネスティ日本支部「橋架」(第6)グループ, 앞의 책, 1-40쪽.

12) 김우종, 『외롭지 않으려고 써버린 낙서』, 지원사, 1972.

13) アムネスティ日本支部「橋架」(第6)グループ, 앞의 책, 일러두기.

(力說)하고 있다.

요망서

(중략)

우리는 일본의 독자가 귀국의 문학에 품은 열의를 담은 기대가 귀국의 정치적 사정에 의해 기세가 꺾이기 없기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또 이호철 씨 등의 결백이 하루빨리 증명되고 그들의 일상생활과 문학생활이 충분히 보증되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귀국 정부 문화공보부에서도 감사비를 받고 『현대한국문학선집(現代韓國文學選集)』의 간행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는 본 선집의 편집위원, 원작자 및 일본독자에 대한 책무로서 전적으로 한일 상호이해와 우호를 위하여 위 요망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1974년 4월 16일

도쿄도 지요다구 간다보초2-18

문예도서출판 주식회사 도주샤(冬樹社)

대표이사 다카하시 나오요시(高橋直良)<sup>14)</sup>

출판사 도주샤(冬樹社)의 대표이사가 요망서 마지막에 이름을 올렸는데, 당시 도주샤는 일본의 출판사로서 『현대한국문학선집(現代韓國文學選集)』 1973년부터 1976년에 걸쳐 전 5권을 발간한 문예전문출판사였다.<sup>15)</sup> 김동리의 『사반의 십자가(サヴァンの十字架)』와 박경리의 『김약국의 딸들(金藥局の娘たち)』이 실려있는 제2권 장편소설편은 1976년에 출판되었는데 김우종이 “작품과 작가(作家と作品)”이라는 제목으로 해설을 썼다.

도주샤의 『현대한국문학선집(現代韓國文學選集)』은 동시대 한국문학

14) アムネステイ日本支部「橋架」(第6)グループ, 앞의 책, 4-5쪽.

15)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한정의 「1970년대 일본의 한국문학 번역 연구 - 『현대한국문학선집』(전5권) 출간을 중심으로」(『비교문화연구』68호,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2023)를 참조할 것.

을 일본에 소개하는 본격적인 시도였는데, 한국의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공권력은 한편으로는 이 책에 작품 또는 해설을 실은 한국 작가들을 꺾박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일례였다. 따라서 5명의 “한국의 솔제니친” 구명운동과 더불어 본 선집에 대한 일본인들의 관심은 더욱 증대되는 의외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 3. 일본에 전해진 ‘한국 솔제니친’의 글과 영향

“한국의 솔제니친” 5인이 『한양』에 발표한 글은 1963년 1월호부터 1972년 2·3월호까지 총 24편이다. 장백일은 1963년부터 1971년까지 12편의 글을 게재하여 가장 긴 기간 동안 가장 많은 글을 발표하였다. 그 다음으로 김우중은 1964-5년에 5편을, 1971년에 1편을 게재하여 총 6편을 잡지 『한양』에 실었다. 이호철은 1967년과 1971년에 각각 1편씩 총 2편을 발표하였으며 임헌영은 1972년과 1973년에 각각 1편씩 총 2편을 게재하였다. 1972년에는 정을병의 소설 1편과 임헌영, 김우중 등이 참석한 좌담회 1편이 게재되었다. 작가별로 게재된 글의 상세 목록은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제목	게재년월	비고
1	김우중	文學과 副業	1964.7.	
2		作家와 現實	1964.9.	
3		農村과 文學	1964.11.	
4		어이 잊힐 그날인가	1965.4.	수필
5		「純粹」의 自己欺瞞	1965.7.	
6		韓國文壇의 近況	1971.4·5.	
7	임헌영·김우중 외	韓國文學의 現況과 課題	1972.2·3.	좌담회
8	임헌영	七·四聲明과 韓國文學의 課題	1972.8·9.	
9		韓國文學의 經濟政治意識	1973.4·5.	

10	이호철	民衆과의 邂逅	1967.7.	
11		歷史속의 人物들	1972.2·3.	
12	장백일	歸鄉에의 設計	1963.1.	
13		오늘의 貧困: 韓國文壇의 近況	1963.5.	
14		同人誌와 그 批評	1963.12.	
15		얹체	1964.2.	수필
16		文學革新	1964.4.	
17		自立精神	1964.6	수필
18		通俗小說의 反省	1964.9.	
19		새 主題의 探求	1964.11.	
20		잘못된 接木	1965.3.	
21		海圖없는 航路: 一九六五年 上半期 詩壇에 부친다	1965.6.	
22		歸鄉에의 몸부림	1970.8·9.	
23		祖國으로 가는 눈	1971.4·5.	
24		정을병	南海 그 모랫집 伝說	1972.2·3.

장백일은 「歸鄉에의 設計」에서 1962년 3월 창간호부터 1962년 11월호까지 『한양』에 게재된 재일조선인 시인 정철(丁徹), 박영일(朴暎一), 김철수(金鉄洙)의 작품 13편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애정 어린 시선으로 비평하였으며 「歸鄉에의 몸부림」에서도 한양사에서 1968년에 간행한 『한국현대 시집 메아리』에 실린 조국애가 드러난 시편들을 대상으로 성실한 평론을 펼쳤다. 이 두 편의 평론은 당대의 한국문학을 다룬 8편의 글에 비해 재일조선인 작품이나 한양사에서 펴낸 한국문학 작품들을 우호적으로 보는 필자의 시선이 잘 드러나 있다.

당대 한국문학을 다룬 장백일의 8편의 글들은 다음과 같다. 「오늘의 貧困: 韓國文壇의 近況」에서는 당시 각 신문사의 〈신춘문예현상〉제와 문예지 추천제, 동인지 붐에 대해서, 「同人誌와 그 批評」에서는 신인문학운동의 문제점에 대해서 논하고, 수필 「얹체」에서는 한국 출판계의 얹체같은 행태에 대해서, 「文學革新」에서는 4.19 이전의 문충, 한국문협, 자유문협 등의 어용문학적 행위와 과렴치한 행위를 비판하고 「새 主題의 探求」에서는 시와 소설에서 주제의 빈곤 현상을 지적하고 한국적 주제, 새로운 한국인의 발견

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通俗小說의 反省」에서는 흥미 중심의 통속소설의 역사를 살펴보고 비판하였다. 아울러 「잘못된 接木」에서는 한국의 엉터리 번역문학을 비판하였으며, 「海圖없는 航路: 一九六五年 上半期 詩壇에 부친다」에서는 한국 내에서 1965년 1부터 4월 사이에 발표된 시들에 대한 실랄한 평론을 펼쳤다. 이상의 비평과 수필에서는 한국의 1963년부터 1965년 사이의 문단상황에 대해 다방면에서 비판하며 주체적인 한국문학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단, 「自立精神」에서는 한국의 경제적 자립과 주체성 확립을 주장하는 시국적인 논평을 선보였는데 앞의 글들이 문학에 전적으로 국한된 글이라는 점에서 이 글은 한국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논평이라 할 수 있다.

이호철은 『한양』에 2편의 글을 발표했는데 그 중 「歷史속의 人物들」이라는 글에서 박규수의 개인사를 논하면서 “일본의 명치유신과 우리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역시 아쉬움은 남는다. 물론 명치유신도 그 깊은 모태는 에도막부 치하의 여러 가지 복합적 요소들의 그 총합에서 보아야 하고, 몇몇 인물들의 힘만으로 이루어졌다고 간단히 보아 넘길 수는 없다.”며 그 미흡점을 “재래의 보수세력들을 그냥 그대로 새로운 상업자본가·관료자본가로 옮겨 앉게 하였다는 그 점”을 든다. “치르어야 할 대가는” “제2차대전에서의 패전”이고 “그 후의 일본은 여전히 그 말기의 어느 끝을 치닫고 있는 것 같다.”고 논한다. “명치유신에서 치르어내지 못한 그 숙제는 여전히 숙제대로 껴안고 있는 것”<sup>16)</sup>이라고 당대 일본 사회를 분석했다.

김우중은 당대 쓰인 새 작품들을 민족문학의 모색이라는 큰 전제 아래 비평한 글들<sup>17)</sup>을 게재하는 한편 “우리는 과거의 유산이 빈곤하다는 점에서만이 아니라 현재의 수준에 있어서도 후진”이라고 평하며 “이것 역시 침략의 덕분”이라고 지적한다. 역사상의 중국침략, 일제침략하의 문화상의 후퇴를 지적하나 이 속에서 생겨난 패배주의자들을 질타하고 “한일 문화교류문제

16) 이호철, 「歷史속의 人物들」, 『漢陽』 105호, 漢陽社, 1972. 2·3, 232쪽.

17) 김우중, 「한국문단의 근황」, 『漢陽』 100호, 漢陽社, 1971. 4·5.; 김우중, 「한국문단의 근황」, 『漢陽』 114호, 漢陽社, 1973. 8·9.

를 둘러싼 KBS방송 좌담회”에서 “이론적 모순성과 조국에 대한 배신성을 동시에 포함”(84)한 발언에 대해 강렬히 비판하고 이들이 “일제 자동차, 일제 텔레비, 일제 소설, 일제 음악, 그리고 ‘기모노’ 스타일의 ‘게이샤’가 등장하는 영화라야만 잘 팔린다는 이색적인 문화 변질기를 초래”<sup>18)</sup>하는 현상을 통렬히 비판했다.

임헌영은 「七·四声明과 韓國文學의 課題」에서 「七·四공동성명」으로 높아진 민족적 긍지”(161)를 배경으로 하는 1972년 7월 당시의 한국문학을 논하였다. 이 글에서 필자는 한국 작가들을 해방 이전 작가들, 해방 이후 50년대 작가들, 60년대 작가들의 세 부류로 나누어 그들의 작품을 비평하고 있다. 당대의 “植民意識化된” 작가들, “反共的 純粹文學”(163) 작가들과 작품을 비판하는 한편 민족문학론의 대두, 김승옥과 같은 신인 작가들의 활동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기할 만한 지점은 필자가 ‘일본’의 한국어독자를 강하게 의식하면서 당대 한국문학의 전반적인 양상을 비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한국에서 시문학 분야가 미약하다고 지적하면서 “김지하씨를 제외하면 오늘의 시는 조용합니다. 김씨에 대해서는 너무나 널리 알려져 있기에 생략합니다. 최근 씨는 마산 요양소에서 나왔습니다.”(168쪽)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는 필자가 일본 내에 알려진 김지하의 명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본인의 의견은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암묵적 동의의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 필자는 “얼마전 李恢成씨가 한국엘 다녀갔습니다. (중략) 이곳을 비록 잠깐만이라도 보고 갔으니 일본에서 통일을 위해 무언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내 작가들이 할 수 없는 참된 역사의 증언을 씨에게 기대하고픈 마음 간절합니다.”(169쪽)라며 게재지 『한양』의 독자를 의식하면서 이회성의 일본 내의 작가적 위치, 역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글들은 한국사회의 문제점의 근원과 해결책을 찾으려는 공통의 목표가 있다. 한국사회의 고래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동시에 일본

18) 김우중, 「민족적 주체성의 확립을 위하여 - 우리 문화와 패배주의」, 『漢陽』 49호, 1966. 3, 83-84쪽.

사회의 문제점도 당당한 필체로 함께 논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일본에서 발행되는 『한양』의 지면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강력하게 통제되고 있는 한국의 상황 속에서 신랄한 비판의 장으로서 기능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논란의 장으로서도 기능하고 있었다는 점은 일본의 “양심있는” 지식인의 관심과 환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한양』의 주 독자는 일본 내 한국어사용 가능자 중 한국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 중에는 전후 한국에 관심을 두며 전전 세대의 한국(문학) 연구 방법이나 내용을 비판적으로 뛰어넘어 새로운 한국(문학) 연구를 하고자 하는 일본 연구자들도 있었을 터, 주요 독자로 『한양』에 서평을 신기도 한, 오늘날 일본 한국문학의 원로 연구자 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를 들 수 있다.

오무라 마스오는 1971년 일본에서 번역되어 출판된 『조선문학사(朝鮮文學史)』의 서평을 발표했다. 그는 『조선문학사』가 “일본말로 쓰여진 초유의 본격적인 문학통사”로서 “650페이지에 이르는 대저의 오분의 사가 고전 부분으로 김사엽 씨의 집필이며, 현대부분은 조연현 씨의 『한국현대문학사』를 개괄적으로 요약 번역한 것”<sup>19)</sup>이라며 상세히 소개한다. 오무라는 고려가요 「만전춘」의 제1연을 한글로 인용하고 일본어로 임의로 의역하여 소개한 후에 “두 민족 간의 참다운 이해는, 오히려 타민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이념적인 주문을 되풀이하는 것보다, 이와 같은 시가의 존재를 아는 그런 단순한 데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sup>20)</sup>라며 한일 양국의 올바른 교류의 태도를 제안한다.

(전략) 확실히 우리들 일본인은 한국문학에 대하여 여태까지 너무도 “무관심” 하였으며, 현재도 기본적으로는 그 정황에 변함이 없다. 최근 김지하가 갑자기 문체된 것도 그 작품이 가지는 민족적 전통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그 정치성 때문에서였다.

19) 大村益夫, 「書評 金思燁·趙演鉉 著『朝鮮文學史』」, 『漢陽』105호, 漢陽社, 1972. 2·3, 175쪽.

20) 大村益夫, 위의 글, 176쪽.

아름든 우리들에게 본서가 무엇보다도 고마운 것은 상당히 많은 시가요가 고체의 한글로, 원문 그대로 수록되어 있고, 더구나 번역이 붙어 있는 점이다. 원문은 간단히 입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번역이 없으면 쉽게 익힐 수도 없는 것이다.

본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학습의 대상일 수는 있어도 비판의 대상일 수는 없다. 다만 한 두가지 느낀 바를 지적한다면, (중략)

현대문학사에 대하여서는 민족통일이 이루어진 후가 아니면 그 사적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울는지 모른다.

권말의 현대문학부문의 색인을 좀더 신중히 정리해 주었더라면 싶었다. 홍사용과 홍로작, 최학승과 최서해, 조포석과 조명희, 나도향과 나삼이 각각 다른 인물처럼 취급되고 있다.<sup>21)</sup>

평자는 일본인 한국문학 연구자로서 상세히 대상 텍스트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균형있는 비판과 사유를 전개하고 솔직하게 글을 전개해나간다. 서평 마지막에는 『조선문학사』를 발간한 출판사 북망사(北望社)가 “좋은 일을 했다”면서 한국고전문학의 원문을 실는 등의 노고가 많았으나 이문은 남지 않을 책을 펴낸 출판사에 격려를 보내며 “『朝鮮文學史』와 같은 책을 내기 위해 여태껏 한번도 배당금을 받지 못한 것을 되려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면 서 한국문학연구에 대한 자신의 진정성을 보이며 마무리한다.

1958년 재일조선인 남학생이 일본 여학생을 강간, 살인하여 사형을 당한 고마쓰가와사건(小松川事件)으로 한국과 한국문학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sup>22)</sup>는 오무라는 그 연구의 자세와 지평을 1970년대부터 확립하여 가고 있었다. 본격적으로 한국문학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훗날 한국과 일본에 윤희동주 문학의 귀환과 김학철 문학의 귀환을 불러온 오무라 마스오의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초석은 이렇게 마련되고 있었다. 일본 앰네스티의

21) 大村益夫, 같은 글, 같은 쪽.

22) 「〈특별대담〉 나는 왜 한국문학 연구자가 되려고 하나」, 『한국학연구』 69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3. 5, 24쪽.

한국 문인 구명운동은 오무라 마스오와 같은 일본의 “양심있는” 문인과 지식인들은 1970년대 “한국의 술제니친”들에게 깊이 공감하며 구명운동에 참여하고 오랜 시간동안 깊이 있게 교류하였다.

#### 4. 한국의 <구리 이순신>과 일본의 <구리 이순신>

한편 앞에서 인용한 오무라 마스오는 서평에서 김지하의 일본 인기가 “그 작품이 가지는 민족적 전통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그 정치성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sup>23)</sup> 김지하는 한국에서 1969년에 『시인』에 시 「황토길」이 실리면서 작가활동을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김지하는 이례적으로 일찍이 신인 무렵부터 일본에 알려졌다.<sup>24)</sup> 김지하의 작품과 1970년대 이미 20대부터 10여 년간 이어져 온 그의 독재정권에 대한 항거에의 삶은 일본에서 매우 높은 관심과 격려를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김지하시집(金芝河詩集)』의 역자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김지하 씨와 같은 무명 신진 작가의 시가 느닷없이 소개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고 또 그 커다란 반향은 일찍이 없어 놀랍기도 하였다.

「오적」으로 시작해서 순식간에 그의 시집 『황토』, 희곡 『구리 이순신』, 담시 「비어(蜚語)」에 시론과 이어 다양한 주요 작품이 전부 번역되고 그 후 계속 점점 커지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게다가 **희곡 『구리 이순신』은 분별이 있는 일본의 젊은 연극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각지에서 공연하여 대단한 주목을 받았다. (강조 - 인용자)** 박정희의 유신독재에 반대하는 ‘민주청년학생총연맹’을 지원하여 지난 4월 16일, 잠행중인 그는 다시 체포되어 비상군법회의에 걸려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

23) 일본 내의 김지하 구명 운동에 대한 오무라 마스오의 관심과 비판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견해는 大村益夫, 「Kimjiha 作品翻訳における語学上の問題点」(『早稲田大学語学教育研究所紀要』 21, 1980.3.), 『韓国近代文学と日本』(緑陰書房, 2003) 등을 참조할 것.

24) 일본에서의 보다 자세한 상황과 일본어 번역 작품 목록에 대해서는 장문석, 「현해탄을 건넌 ‘타는 목마름’ - 1970년대 일본과 김지하라는 텍스트」(『상허학보』 58집, 상허학회, 2020)를 참조할 것.

부터 이것을 부당하게 여긴 일본 및 국제여론이 고조됨에 따라 그의 작품에 관한 관심은 무언가, 무엇이 이 정도로 그의 작품에 대한 일본의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그의 행동을 통해 인식되는 한국의 현실과 그 표현의 독자성과 선명하고 강렬함이었다. 마치 그 현상은 한국에서는 한층 충격적으로 드러났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는 정치문제로까지 발전하여 대단히 문제적인 것이 되었다.<sup>25)</sup>

일본 앰네스티의 “한국의 솔제니친” 구명운동에서도 김지하의 이름이 거론되는데 또한 한국의 시인 김지하가 ‘민청학련(民靑學連)’사건으로 체포되어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는 소식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제작년 김지하가 체포되어 자유로운 발표활동을 박탈당했을 때 구원활동의 일환으로 그의 희곡『구리 이순신(銅の李舜臣)』의 상연운동을 벌였”<sup>26)</sup>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의 솔제니친” 구명운동과 김지하의 구명운동이 각각 다른 이의 구명운동이지만 결국은 같은 맥락에서의 구명운동이자 사회운동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일본 앰네스티에서는 “한국의 솔제니친” 구명운동 당시인 1974년 시점에서 제작년 즉 1972년에 일본에서는 김지하 구명운동의 하나로 <구리 이순신>을 상연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의 “분별있는 젊은 연극인들” 곧 박정희 유신체제의 부조리함을 공감하고 그에 저항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사표명의 하나로서 <구리 이순신>의 공연을 결심한 연극인들은 1971년 9월 이전부터<sup>27)</sup> 이미 일본 곳곳에서 <구리 이순신>의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김지하의 희곡「구리 이순신」은 “권력의 장식으로 떨어진 충무를 해체한 풍자극”으로 원래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연극회의 1971년 봄 정기 공연으

25) 金芝河, 姜舜 訳, 『金芝河詩集 付 戯曲 銅の李舜臣』, 青木書店, 1974, 293-294쪽.

26) アムネスティ日本支部「橋架」(第6)グループ, 앞의 책, 일러두기.

27) 若杉光夫 外, 「座談会 演劇時評 - 銅の李舜臣」 「日本海流」 「抱擁家族」 「オンディーヌ」 「オスカ」 「異邦人」 「銀河鉄道の恋人たち」 「花の無縁佛供養」 「苦海浄土」, 『悲劇喜劇』 24(9)(251), 早川書房, 1971. 9, 97-98쪽.

로 예정돼 있었으나, 교련 반대 시위로 무산되자, 위수령이 발동된 삼엄함 속에 『다리』 13호(1971. 11.)에 발표되었다. 단막극인 「구리 이순신」은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의 동화 「행복한 왕자 (The Happy Prince, 1888)」를 패러디한 작품이다.<sup>28)</sup> 「행복한 왕자」의 행복한 왕자는 동상이 되어야 비로소 민중을 돌아보며 동상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민중을 돕는 반면 「구리 이순신」의 이순신은 구리 동상 속에 갇혀 자신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이다. 곧 「구리 이순신」은 이순신에 대한 박정희의 개인적인 경의심이 국가적인 차원으로 옮겨가며 생겨난 충무로의 이순신 동상에 대한 강한 풍자와 조롱이 담겨 있다.

한국에서 임진왜란과 이순신의 서사는 보통 국난을 해결하는 영웅서사로서 유통된다. 특히 박정희 정권 시기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강화되었다. 1973년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정부가 뺏어가는 국력을 과시하는 상징으로 세운” 장충동 국립극장의 개관기념공연은 이재현의 「성웅 이순신」이었다.<sup>29)</sup> 「성웅 이순신」 1960년대 후반부터 ‘이순신’으로 대표되는 ‘호국문화유적의 복원과 정화’를 특별히 강조했던 박정희와 이를 충실히 떠받들던 박정희 휘하에 있던 자들에 의해 강제된 ‘이순신’ 상, 즉 임진왜란의 내적 원인과 이에 영웅적으로 대처했던 이순신의 위대함으로 무장되어 무대에 올려졌다.<sup>30)</sup>

한국에서는 박정희가 되고자 했던 영웅상을 이순신에 들썩워 형상화되도록 한 가이드라인에 일정하게 맞는 ‘이순신물’만이 유통되고 있었으나 일본에서는 그런 박정희식 영웅주의 이순신에 반기를 드는 〈구리 이순신〉이 전국적으로 상연되고 있었으니 같은 시기에 한국과 일본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의 이순신이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 내에서는 유통되거나 소통되

28) 최원식, 『이순신을 찾아서』, 돌베개, 2020, 82-83쪽.

29) 윤진현, 「1970년대 국립극단 역사 소재극 연구」, 『민족문화사연구』 31집, 민족문화사학회·민족문화사연구소, 2006, 347-348쪽.

30) 1970년대 역사극과 이재현의 「성웅 이순신」 공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윤진현의 「1970년대 역사 소재극에 나타난 담론투쟁 양상 - 이재현의 「성웅 이순신」과 김지하의 「구리 이순신」을 중심으로」(『민족문화사연구』 26집, 민족문화사학회·민족문화사연구소, 2004, 34-53쪽)을 참고할 것.

기 어려웠던 비영웅적 이순신의 이야기는 현해탄을 건너 일본에서 부조리하고 타락한 정권에 맞서는 이야기로서 향유되어 널리 퍼지고 있었다.

삼엄한 유신 독재에 저항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에서 그 부당함을 외치는 이런 사례는 솔제니친을 비롯하여 역사상 세계적으로 드물지 않은 것이었다. 다만 보다 면밀히 살펴야 하는 점은 일본에서의 “한국의 솔제니친” 구명운동과 <구리 이순신>의 상연은 일본 내 한국(문학)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이다.

## 5. 결론 및 과제

어떻게 그리고 왜 일본은 한국(문학)에 관심을 가졌는가? 이 물음에 대한 하나의 사례로서 1970년대 전후 시기 한국과 일본의 문학교류를 살펴보았다. 1970년대 전후 『한양』을 중심으로 한 한일 간 문학교류는 박정희 유신독재를 고발하고 이에 저항하는 의식을 일본 문인, 지식인, 독자들과 공유하고 ‘문인간첩단사건’ 관련 5명의 문인과 김지하의 구명운동을 벌이는 쪽으로 전개되었다. 김지하의 투옥과 ‘문인간첩단사건’의 발발로 “양심있고” “분별 있는” 진보적 일본인들은 솔제니친의 한국버전으로 해당 사건을 상징화하여 결속을 촉구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였다.

‘문인간첩단사건’에 연루된 이호철, 김우중 등의 문인들은 1974년 이전 『한양』에 한국(문학)의 상황과 문제점, 나아갈 방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글을 현장감 있게 전했으며 이런 글들은 일본의 한국어 사용 독자들에게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 글들은 패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한국(문학) 연구를 하고자 하였던 오무라 마스오 등의 전후 1세대 일본의 한국(문학) 연구자들이 본격적으로 한국문학을 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하였으며 아울러 한국문학가들과 교류하고 연대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일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 1970년대 일본은 극우 소설가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

1925-1970)가 민병조직인 다테노가이(楯の會) 회원과 함께 일본 헌법 개정과 자위대 결기를 주장하며 육상자위대 주둔지에서 할복자살을 한 사건으로 막을 열었다. 이 사건은 당시 일본 자위대를 비롯하여 일본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한 하나의 엽기적인 사건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일본의 극우, 보수진영의 저변을 흐르고 있는 군국주의적 성격이 전후에도 건재하고 있음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기도 하다.

이런 일본 보수진영에 있어서 『한양』 게재 글들과 “한국의 솔제니친” 구명운동 등은 일제 강점기에 널리 퍼졌던 ‘2등 국민’ 조선인에 대한 인식과 혐오를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더욱 공고히 하는 사례들로서 작용했을 수 있다. 패전으로 인하여 이러한 인식이 소거되었던 사람들에게 유신 독재정권의 친일적 성격과 함께 반작용을 일으키며 과격한 혐한(嫌韓) 인식이 배태되는 데에 일조하기도 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서 전전, 일제의 지도 아래 관제적 성격으로 생성되었던 일본 한국(문학)연구의 흐름을 끊어내고 일본과 한국의 새로운 교류의 장과 한국(문)학연구의 성과를 이루어내고자 노력한 제1세대 한국문학 연구자들의 탄생과 성장은 매우 귀중한 일본 한국학연구의 자산이다. 다만 이러한 자산의 연구와 더불어 그 반대측에 있었던 혐한을 강화시키고 증식시키던 측면 또한 함께 살필 때 비로소 일본의 한국(문)학연구의 균형이 잡힐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앞으로의 일본 한국학연구의 과제로 삼기로 한다.

## ■ 참고문헌

- 김우중, 「민족적 주체성의 확립을 위하여 - 우리 문화와 패배주의」, 『漢陽』 49호, 1966. 3.
- \_\_\_\_\_, 「한국문단의 근황」, 『漢陽』 100호, 漢陽社, 1971. 4·5.
- \_\_\_\_\_, 『외롭지 않으려고 써버린 낙서』, 지원사, 1972.
- \_\_\_\_\_, 「한국문단의 근황」, 『漢陽』 114호, 漢陽社, 1973. 8·9.
- 金芝河, 姜舜 訳, 『金芝河詩集 付 戯曲 銅の李舜臣』, 青木書店, 1974.
- 「문인 간첩단 사건' 임헌영 무죄...44년만에 전원 누명 벗어」, 『뉴스시스』, 2018. 6. 24.  
([https://newsis.com/view/?id=NISX20180624\\_0000344611&cid=10201&pid=10200](https://newsis.com/view/?id=NISX20180624_0000344611&cid=10201&pid=10200))
- 서세림, 「이호철 장편소설 『문』에 나타난 분단 인식」, 『이화어문논집』 39집, 이화어문학회, 2016.
- \_\_\_\_\_, 「이호철 소설과 일본」, 『한국근대문학연구』 19호, 한국근대문학회, 2018.
- 손남훈, 「『한양』 게재 시편의 변화 과정 연구 : 庚連과 鄭英勳의 시를 중심으로」, 『韓國文學論叢』 70호, 한국 문학회, 2015.
- \_\_\_\_\_, 『『한양』 게재 재일 한인 시의 주제 구성과 언술 전략』,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_\_\_\_\_, 「1960년대 『한양』의 민족 주체성 회복 담론」, 『인문학연구』 56호,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6.
- \_\_\_\_\_, 「『민족의 존엄』에 나타난 민족 주체성 담론과 정치 비판의 논리」, 『한민족문화연구』 80호, 한민족문화학회, 2022.
- アムネスティ日本支部「橋架」(第6)グループ, 『韓国のソルジェニツィン - 李浩哲・金宇鐘ら五名の文人を救おう』, アムネスティ日本支部「橋架」(第6)グループ, 1974. 5.
- 양아람, 「1982년 솔제니친의 일본 방문과 일본의 솔제니친 수용 : 반공, 일본 공산당과 역사 인식」, 『아세아연구』 제64권 제4호(통권 제186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2021.
- 大村益夫, 「書評 金思燁・趙演鉉 著『朝鮮文学史』」, 『漢陽』 105호, 漢陽社, 1972. 2·3
- \_\_\_\_\_, 「Kimijha 作品翻訳における語学上の問題点」, 『早稲田大学語学教育研究所紀要』 21, 1980.3.
- 오창은, 「만들어진 '악'과 분단서사의 굴절」, 『어문논집』 74집, 중앙어문학회, 2018.
- 유임하, 「담현 현실과 열린 분단서식 - 이호철의 장편소설 『문』」, 『돈암어문학』 23호, 돈암어문학회, 2010.
- 윤진현, 「1970년대 역사 소재극에 나타난 담론투쟁 양상 - 이재현의 「성웅 이순신」과 김지하의 「구리 이순신」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26집,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04.
- \_\_\_\_\_, 「1970년대 국립극단 역사 소재극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31집,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06.
- 이한정, 「1970년대 일본의 한국문학 번역 연구 - 『현대한국문학선집』(전5권) 출간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68호,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2023.
- 이호철, 『民衆과의邂逅』, 『漢陽』, 漢陽社, 1967.7.
- \_\_\_\_\_, 『歴史속의人物』, 『漢陽』 105호, 漢陽社, 1972.2·3.
- 임유경, 「낙인과 서명 - 1970년대 문화 검역과 문인간첩」, 『상허학보』 53집, 상허학회, 2018.
- 임헌영·김우중 외, 「韓國文学の現況と課題」, 『漢陽』, 한양사, 1972.2·3.
- 임헌영, 「七·四声明과 韓國文学の課題」, 『漢陽』, 한양사, 1972.8·9.
- \_\_\_\_\_, 「韓國文学の經濟政治意識」, 『漢陽』, 한양사, 1973.4·5.
- \_\_\_\_\_, 「내가 겪은 사건 - 4년 문인간첩단사건의 실상」, 『역사비평』 13호, 역사문제연구소, 1990.

- \_\_\_\_\_, 「회고 투 스타의 추억 한 토막 - 문인간첩단 사건에 대한 기억」, 『기억과 전망』 43호, 한국민주주의연구회, 2020.
- 若杉光夫 外, 「座談會 演劇時評 - 銅の李舜臣」「日本海流」「抱擁家族」「オンディーヌ」「オスカー」「異邦人」「銀河鉄道の恋人たち」「花の無縁佛供養」「苦海浄土」, 『悲劇喜劇』 24(9)(251), 早川書房, 1971. 9.
- 장문석, 「현해탄을 건넌 '타는 목마름' - 1970년대 일본과 김지하라는 텍스트」, 『상허학보』 58집, 상허학회, 2020.
- 장백일, 「歸郷에의 設計」, 『漢陽』, 漢陽社, 1963. 1.
- \_\_\_\_\_, 「오늘의 貧困 : 韓國文壇의 近況」, 『漢陽』, 漢陽社, 1963. 5.
- \_\_\_\_\_, 「同人誌와 그 批評」, 『漢陽』, 漢陽社, 1963. 12.
- \_\_\_\_\_, 「암체」, 『漢陽』, 漢陽社, 1964. 2.
- \_\_\_\_\_, 「文學革新」, 『漢陽』, 漢陽社, 1964. 4.
- \_\_\_\_\_, 「自立精神」, 『漢陽』, 漢陽社, 1964. 6.
- \_\_\_\_\_, 「通俗小説의 反省」, 『漢陽』, 漢陽社, 1964. 9.
- \_\_\_\_\_, 「새 主題의 探求」, 『漢陽』, 漢陽社, 1964. 11.
- \_\_\_\_\_, 「잘못된 接木」, 『漢陽』, 漢陽社, 1965. 3.
- \_\_\_\_\_, 「海圖없는 航路 : 一九六五年 上半期 詩壇에 부친다」, 『漢陽』, 漢陽社, 1965. 6.
- \_\_\_\_\_, 「歸郷에의 몸부림」, 『漢陽』, 漢陽社, 1970.8 · 9.
- \_\_\_\_\_, 「祖國으로 가는 눈」, 『漢陽』, 漢陽社, 1971.4 · 5.
- 조은애, 「디아스포라의 교착과 '연대'의 임계」, 『디아스포라의 위도』, 소명출판, 2021.
- 조현일, 「이호철의 「문」, 「문」과 법의 폭력성에 대한 연구」, 『비평문학』 74호, 한국비평문학회, 2019.
- 「〈특별대담〉 나는 왜 한국문학 연구자가 되려고 하나」, 『한국학연구』 69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3. 5.
- 최원식, 『이순신을 찾아서』, 돌베개, 2020.
- 하상일, 「1960년대 현실주의 문학비평 연구 : 『한양』 · 『침묵』 · 『창작과비평』 · 『상황』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_\_\_\_\_, 「1960~80년대 재일(在日) 종합문예지 『한양』 게재 문학작품의 서지적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74호, 한민족문화학회, 2021.
- \_\_\_\_\_, 「1960~80년대 재일(在日) 종합문예지 『한양』과 한국문학의 교섭」, 『한민족문화연구』 77호, 한민족문화학회, 2022.
- \_\_\_\_\_, 「1960~80년대 재일(在日) 종합문예지 『한양』과 재일조선인문학의 영향」, 『한민족문화연구』 82호, 한민족문화학회, 2023.
- 『韓國近代文學と日本』, 緑陰書房, 2003.

# Literary Exchanges and Influences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e 1970s

Focusing on the ‘Literary Spy Incident’ and the Movement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Writers in Japan

Yun Miran\*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significance of the exchange and communication between Korean and Japanese writers around the 1970s. The magazine “Hanyang(漢陽)”, published in Korean in Japan, served as a communication channel for writers in Japan around the 1970s to exchange Korean society and literature. In 1974, the “Literary Spy Incident” occurred, and the movement to save Korean writers in Japan began in earnest under the slogan “Korean Solzhenitsyn.” Meanwhile, Kim Jiha’s play “Guri Yi Sun Sin(李舜臣)” was performed starting in 1972 as part of the movement to save Kim Jiha, and this movement was also spreading further at the time. As a result, interest in Korean society, Korean literature, and about Korean writers in Japan was further heightened. This social background influenced both the Japanese conservative forces that were in line with the pro-Japanese nature of Yushin regime and the progressive intellectuals who strongly displayed anti-regime characteristics.

**Key words** : 1970s, Magazine “Hanyang(漢陽)”, Literary Spy Incident, Solzhenitsyn, “Guri Yi Sun Sin(李舜臣)”, Korean literature in Japan, Influence

논문투고일 : 2023년 7월 23일 || 심사완료일 : 2024년 8월 21일 || 게재확정일 : 2024년 8월 22일

---

\* Researcher of Inha Univ. Center for Korean Studies